

기사의 종자선택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

박 유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출판보도활동에서 혁신을 일으키는데서 중요한것은 우리 당이 제시한 종자론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는것입니다. 종자론은 출판보도활동에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근본열쇠입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21권 67페이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온 나라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하여 새로운 비약의 속도로 힘차게 전진하는 현실은 우리 출판보도부문의 일군들과 기자, 언론인들이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기자, 언론인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한편의 기사를 써도 당의 사상이 맥박치고 인민대중이 좋아하는 글을 쓰도록 하여야 한다.

기사를 잘 쓰기 위한 방도적인 문제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사상적알맹이인 종자를 잘 심고 가꾸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종자를 바로 쥐고 글을 쓰는것은 우리 당 출판보도활동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다.

출판보도사업에서 종자를 바로쥐고나가야 당의 사상과 정책적요구에 맞게 글을 쓰고 편집할수 있으며 출판보도물의 보도성과 정론성, 과학성과 진실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기사의 종자는 기사의 핵으로서 기자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있고 보도성과 정론성의 요소들이 뿌리내릴수 있는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를 말한다.

기사의 종자선택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무엇보다먼저 종자를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잡는것이다.

기사의 종자를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잡

아야 하는것은 우리 당 정책이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제때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당 정책이 사람들이 사회적존재로서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참답게 빛내이며 영생하는 삶,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누릴수 있는 길을 밝혀주기 때문이다.

기사의 종자를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잡자면 기자가 당정책을 적극 옹호하는 혁명적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어떤 생활에서 종자를 찾기 위하여 그 분야에 대한 측면에서만 당정책을 학습하는데 그치면 당정책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체득할수 없으며 결과 현실생활을 일면적으로 보게 되고 종자를 똑바로 잡아쥐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사집필에서도 당정책을 한갓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실무주의적경향을 배격하고 당정책을 자기의 신념으로, 기사집필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를 골라잡을 때 기사의 특성을 살린다고 하면서 보도성만 내세우고 정치적요구를 뒤전에 놓아서는 안되며 또 정치적의의가 있는 종자를 잡는다고 하면서 정치성이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생활현상만 찾는 경향이 없어야 한다.

경제건설을 위한 투쟁이나 문화도덕적인 생활에서도 사회적의의가 있는 종자를 잡아서 얼마든지 정치성있게 보여줄수 있다. 중요한것은 우리 인민의 사회정치생활, 문화도덕생활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문제들을 어떻게 당정책에 맞게 풀어나가는가 하는데 있다.

실례로 소묘경연이 진행되고있는 현장에서 기자는 선군시대에 우리의 미술을 보다 새로운 혁명적인 예술로,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위력한 무기의 하나로 발전시킨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를 생

각해볼수 있으며 여기서 미술의 형태와 혁명적진군의 추동력으로서의 문학예술에 대한 새로운 종자를 잡을수 있는것이다.

바로 이렇게 기사종자는 당정책이 구현되어있는것이여야 한다.

기사의 종자선택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다음으로 새로운 사실, 사건으로 구현할수 있는 종자를 잡는것이다.

기사의 종자가 새로운 사실, 사건으로 구현할수 있는것이여야 하는것은 기사의 본질적특성으로부터 제기된다.

기사에서 종자는 글의 핵으로 되는것만큼 기사의 특성을 체현한것이여야 한다.

기사의 특성은 정론성과 함께 새로운 사실, 사건을 알려주는 보도성이다. 이로부터 기사의 종자는 해설담화체강이나 강연체강, 론문과 같이 그 어떤 설명이나 해설로써가 아니라 당정책을 사실적으로, 사건적으로 알려줄수 있는것이여야 한다.

경제건설이나 문화건설부문에 대한 당정책을 구현해야 하는 경우에도 기사의 종자는 어디까지나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실현하는 사람들의 투쟁과 활동, 그 과정에 발생한 사실, 사건의 요소를 안고있어야 한다.

만일 기자가 어떠한 사실, 사건을 서술하면서 주요반영대상 즉 사실, 사건의 입자, 장소, 시간, 원인, 결과와 매 련관사건의 관계, 작품의 구성과 종류, 서술문체 같은것을 예상할수 없는 사상적알맹이를 쥐었다고 하면 그것은 기사의 종자가 아니라 철학이나 정치경제학에서 풀어야 할 종자를 잡은것으로 될것이다.

가치있는 사상적알맹이라도 사실, 사건의 전달을 거쳐 밝혀지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없는것이다.

종자를 골라잡을 때 정치사상성만 중요시하고 보도성을 홀시하여서는 안된다. 정치사상성이 높아도 시사적인 사실, 사건으로 풀어낼수 없는것이라면 기사의 종자로 되지 못한다. 이로부터 기사의 종자는 보도성을 담

보하는 근본조건으로 된다고 말할수 있다.

기사의 종자를 똑바로 심지 못하면 보도성도 정론성도 다 살려내지 못하게 된다.

사실, 사건으로 구현할수 있는 종자를 잡자면 우선 기자들이 들끓는 현실에 들어가서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의 보람찬 생활, 격변하는 시대의 움직임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기자는 모든 생활을 직접 체험할수 없으며 또 자신이 실지 체험하고 목격한 생활만 가지고 기사를 쓰는것이 아니다. 지난간 생활은 물론 오늘의 생활이라고 하여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하여 체험하지 못했으나 그것을 가지고 기사를 써야 할 때도 있다.

기자는 자신이 직접 겪어보지 못한 과거의 생활을 내용으로 하여 기사를 써야 하는 경우 그 당시 생활자료들을 깊이 연구분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시대의 본질을 체현하고있는 종자를 찾아내야 한다.

정론《심장에 불을 달라 혁명군가여!》를 집필한 기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장정의 길에서 언제나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중시하시며 자주 깊은 관심속에 보아주시는 사실에서 문제점을 잡고 이에 대한 여러가지 자료를 깊이 연구분석하는 과정에 시대의 본질을 안고있는 종자, 공훈국가합창단은 선군혁명대오의 나팔수라는 종자를 잡게 되었다.

사실, 사건으로 구현할수 있는 종자를 잡자면 또한 기자들이 높은 정치적식견과 예리한 안목을 가지고 생활을 대하여야 한다.

기자들은 현실을 폭넓고 깊이있게 볼줄 알아야 하며 시대의 열망을 한가슴에 안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려는 불타는 열정과 고상한 정신을 지녀야 한다.

실례로 미제침략자들의 날강도적인《푸에블로》호 사건으로 우리 나라에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었을 때 어느 한 건설장을 지나가던 기자는 일촉즉발의 정세속에서도 건설의 마치소리가 계속 울리는 하나의 현상을 목

격하였다. 그것은 한마디로 래일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오늘밤 12시까지의 사회주의건설을 해야 한다는 우리 당의 사상이었고 신념과 배짱이었으며 시대의 숨결이었다. 기자는 이 모든것을 가슴벅차게 느끼는 과정에 특색있는 종자를 발견하였다.

기사의 종자선택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다음으로 언제나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를 잡는것이다.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를 잡는다고 할 때 그것은 언제나 비반복적이며 생활발전의 새로운 싹을 독특하게 체현하고있는 종자이다.

종자를 새롭고 특색있게 잡아야 하는것은 새로운 사실, 사건을 의의있게 전달하기 위해서이며 특히는 사람들의 관심과 공정을 받을수 있는 기사를 쓰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진실하고 생동한 사실, 사건으로써 우리 당의 사상과 정책, 혁명발전의 요구와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경험과 교훈 등을 참신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아무리 반영된 생활, 사건이 다르다고 하여도 종자가 새롭고 독특하지 않다면 그 효과는 막대한적이지 못하며 사람들속에 여운을 남길수 없다. 한마디로 종자에 따라 생활도 다르게 선택되게 되며 같은 생활도 어떤 종자를 잡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안겨울수 있다. 그러므로 참신하고 생명력있는 기사를 쓰자면 종자부터 특색있는것으로 되어야 한다.

일군들이 실력이 있어야 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준 한 경험기사의 종자는 《훈수바람에 이긴 장기군은 승리자가 아니다.》라는 특색있는 종자를 심어주었다.

기자는 취재과정에 사업성과를 이야기해주는 일군들의 말속에서 《장기》, 《훈수》 등

의 생활언어를 포착하고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를 잡아질수 있었다.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를 발견하는것은 쉽지 않다.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를 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활분야에 눈을 돌려야 한다. 기사의 철학적깊이와 보도성, 정론성, 전투성, 호소성은 종자에서부터 흘러나오며 사실전달의 새로운 맛도 종자에서부터 흘러나온다. 따라서 기자는 같은 분야의 생활에서도 언제나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를 찾아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지만 반복과 류사성을 피하기 위하여 새로운 생활분야를 찾아가는것도 필요하다.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를 찾기 위해서는 이와 함께 기사의 소재에 대한 깊이있는 탐구로 발견을 새롭게 하여야 한다.

기사의 소재를 분석해보면서 그 사실, 사건, 현상이 나타나게 된 요인을 찾아 종자로 심화시킬수 있다.

이처럼 기사의 종자는 그 선택에서 일련의 요구를 제기한다.

어떠한 방법으로 종자를 탐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가공하여 글을 쓰는가 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새롭고 참신한 기사를 써내기 위한 종자 탐구에서는 언제나 당의 사상과 숨결로 사고하고 숨쉬며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 모든 지혜와 정열을 깡그리 바쳐가려는 높은 각오를 가지고 달라붙어야 훌륭한 결실을 가져올수 있다.

모든 기자, 언론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끊임없이 높여 참신하고 의의있는 기사들을 더 많이 써냄으로써 당정책의 옹호자, 관철자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할것이다.